

# 동두치

2022 | 가을 | 49호

**녹두칼럼**  
박준성  
역사학연구소 연구원

**뉴스초점**  
동학농민혁명 주요 뉴스

**기념재단 포커스**  
주요 사업 소개

**지면전시**  
동학농민혁명 추모관 전시관

**유족인터뷰**  
송종수  
참여자 송국섭의 손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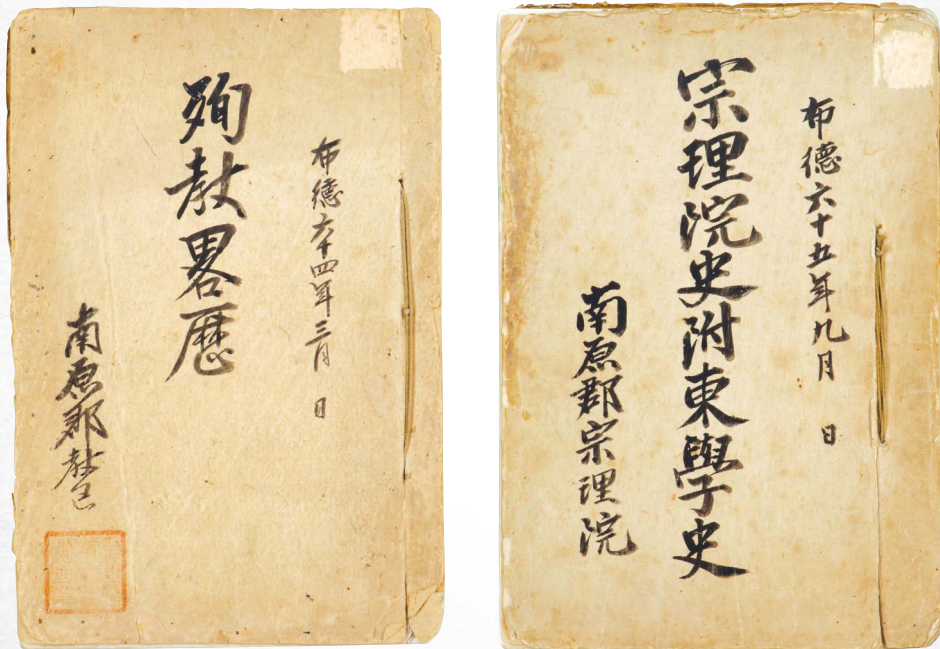
**지역대담**  
위의환  
장흥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이사장

동학농민혁명 추모관 전시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 『순교약력』, 『종리원사 부동학사』



『순교약력』(殉教畧歷) / 『종리원사 부동학사』(宗理院史 附東學史)

23.7×16.0cm / 24.5×17.0cm |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소장(2011년 김동규 기증), 전라북도 문화재자료 제194호

위 사료는 천도교 남원군 종리원 소속 주임 종리사 최병현이 남원지역 동학농민군 지도자 유태홍의 구술을 바탕으로 쓴 책이다. 1923년 간행된 『순교약력』은 남원 출신 동학농민군 92명의 이력(출생지, 거주지, 활동내용, 당시의 지위, 체포과정 등)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고, 1924년 필사된 『종리원사 부동학사』는 1861년부터 1894년까지 남원지역 동학(東學)의 연혁을 기록한 책으로, 동학사라는 제목의 부록에 1894년 동학농민혁명 당시 남원지역과 전라좌도의 상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위 두 유물은 사료적 가치를 인정받아 2018년 전라북도 문화재자료로 일괄 지정되었다.

## 목차

- 04 **녹두칼럼**  
박준성 / 역사학연구소 연구원
- 06 **뉴스초점**  
‘불멸-바람길’ 전봉준 장군과 동학농민군상  
2022년 한국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관리기관 워크숍
- 10 **기념재단 포커스**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개원 기념 특별전\_동학로 742  
『동학농민혁명 신국역총서 14』 발간  
유물 기증·유물 구입
- 16 **참여자 유족인터뷰**  
송종수 / 참여자 송국섭의 손자
- 24 **지면전시(紙面展示)\_1**  
동학농민혁명 추모관 전시관(박물관)
- 32 **인권과 평화**  
녹두꽃과 동백꽃으로 여는 세상
- 36 **지역대담**  
위의환 / (사)장흥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이사장



- 44 **지역단체 포커스**  
2022년 예천동학농민혁명 학술대회
- 45 **교육·체험**  
녹두꽃, 다시 피다
- 50 **보도기사색인**  
언론에 비친 동학농민혁명



**표지 설명** 2022년 5월 11일 개관한 동학농민혁명 추모관·전시관 전경(前景)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에 들어선 추모관에는 참여자 3,694명의 명패(名牌)가 모셔져 있으며, 전시관은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미와 그 위상을 동아시아적, 세계사적 차원에서 조망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제자(題字) : 효봉 여태명**



# 기억하고 기념해야 할 역사 전적지

— 강원도 홍천 서석 풍암리 전적지 —



박준성 역사학연구소 연구원

역사의 사건이나 인물은 자료의 발굴과 연구의 축적에 따라 내용이 보충되고 재해석된다. 현실의 요구와 이해 관심에 따라 기존에 알고 있던 사실도 새롭게 보게 된다. 기록뿐 아니라 역사의 현장도 다시 꾸며진다. 1894년 동학농민혁명 역사 현장에는 곳곳에 알림판이나 기념 조형물이 세워져 있다. 동학농민혁명을 기념하는 탑으로 맨 먼저 만들어진 탑이 1963년의 황토현에 세워진 ‘갑오동학혁명기념탑’이다. 두 번째가 1973년 우금티의 ‘동학혁명군위령탑’이다. 세 번째가 1977년 주민들이 성금을 모아 세운 강원도 홍천 서석면 풍암리의 ‘동학혁명위령탑’이다.

강원도는 동학이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에서 교단이 위기를 극복하고 경전 간행과 포교의 기반이 이룬 곳이었다. 동학운동에 참여했던 강원도 동학농민군은 1894년 자신의 생존과 사회의 변혁을 이루고자 투쟁에 나섰다. 8월 중순 무렵부터 평창 쪽에 결집해 있던 영월과 평창, 정선 등 5개 읍의 농민군 본대 천여 명이 9월 4일 오전 대관령을 넘어 강릉부관아를 점거하였다. 전라도 쪽 전봉준 세력이 집강소 체제를 벗어나 움직이기 시작한 9월 10일 무렵이나, 최시형이 기포령을 내리고 북쪽 교단지도부가 활동에 나선 9월 18일 보다 보름여 앞선 때였다.

강원도 동학농민군의 최대 전적지는 홍천군 서석 풍암리였다. 강릉·양양·원주·횡성·홍천 등 5읍의 접주로 불렸던 농민군 지도자 차기석과 접주 박종백이 이끄는 강원도 중부내륙 지역의 농민군은 10월 13일 밤에 홍천군 내촌면 물걸리 동창(東倉)을 점거하였다. 10월 23일에는 홍천군 서석면 풍암리에서 강원도 지역



최대의 접전이 이루어졌다. 기존에는 풍암리 전투가 10월 22일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근래 <갑오군정실기>의 발굴에 따라 10월 23일로 수정되었다. 서석에 모인 농민군 수천명은 풍암리 진동에 흠으로 보루를 쌓고 백기를 꽂아 진을 치고 토벌대와 맞섰다. 맹영재가 이끄는 토벌대와 친군진어영 병정, 홍천현의 포군 연합부대 1000여 명에 대항하여 농민군은 한낮부터 저물 때까지 치열하게 싸웠다. 서석에서 토벌대의 토벌은 2~3일 계속되었다. 횡성쪽 토벌대는 풍암리전투가 끝난 뒤 10월 24일 새벽에 서석에 도착하여 26일까지 주둔하고 횡성현으로 돌아갔다.

1894년 동학농민혁명 이후 희생당한 농민군 위령제가 처음 열린 곳이 강원도 홍천이었다. 해방 후 1946년, 홍천에서 농민군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위령제를 거행한다는 신문기사에는 홍천군 서석면 풍암리 전투의 농민군 희생을 ‘갑오동학혁명운동의 가장 처참한 비극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희생자를 2천 여 명으로 거론하고 있다. 서석 지역의 후손들이 증언하였던 800여~1000여명 희생이 과장이 아니라는 것을 방증해 준다. 또한 유가족들의 거주지를 홍천·춘천·원주·정선 등지로 꼽고 있다. 서석 전투에 참여한 농민군들이 홍천 뿐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 합류한 농민 연합군이었음을 알려준다. 지금도 매년 10월이면 기념 추모제를 진행하고 있다.

기념은 과거를 기억하고 생각하는 현실의 행위이다. 기념할 대상은 승리의 역사만이 아니다. 중국 남경대학살기념관 곳곳에는 ‘전사불망 후사지사(前事不忘 後事之師)’라는 글귀가 걸려 있다. ‘지나간 일을 잊지 말아야 하는 까닭은 그것이 다가올 일에 가르침이 되기 때문이다’는 뜻이다.

강원도 홍천군 서석면 풍암리 동학농민혁명 전적지는 강원도 기념물이다. 1894년 동학농민혁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의미, 역사적 사실의 근거, 기념행사의 지속성, 사적지의 지역적 형평성 등을 고려하면 국가 사적지로 승격하여 지정함이 마땅하다.

## ‘불멸-바람길’

— 전봉준 장군과 동학농민군상 —

March of General Jeon Bongjun and Donghak Peasant Army



▣ 새로 세워진 ‘불멸-바람길’ 군상(群像)



▣ 기존 ‘전봉준 장군상’

지난 6월 25일 정읍 황토현전적(사적 제295호) 내에 동학농민혁명 기념 조형물 ‘불멸-바람길’이 새롭게 선보였다. 기존에 있던 전봉준 장군 동상은 친일작가 김경승(1915~1992)의 작품으로, 논란이 지속되다가 결국 지난 해 9월 13일 철거되었다. 정읍시는 2021년 6월부터 2022월까지 2월까지 8개월 간 국민성금을 통해 총 비용 13억 8천만 중 2억 2570만원을 모아 새로운 기념시설물 건립을 추진하였다. 아래로부터의 혁명, 동학농민혁명을 기념하는 조형물이 국민성금으로





건립되어 그 의미를 더하였다.

‘불멸-바람길’(조각, 가로 27m, 세로 17.2m, 높이 5.8m, 재료 : 청동·화강암·마천석)은 전봉준 장군과 동학농민군상(東學農民軍像)이다. 부조와 투조, 환조의 기법으로 동학농민군의 출정(出征) 이미지를 형상화한 이 작품은 ‘사람 인(人)’자의 형태로 배치하여 동학농민군의 기치인 ‘사람이 하늘이다’라는 만민평등 정신을 표현하였다. 한편,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동상 제작자 임영선(가천대학교 교수)은 2021년 10월부터 1년 8개월에 걸쳐 ‘전봉준장군동상재건립추진위원회’와 역사적 고증 등을 통해 작품의 완성도를 높였다.



## 2022년 한국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관리기관 협의회 실무자 워크숍



■ 워크숍 : 개회 및 논의

2022년 6월 10~11일 이틀간 제주4·3평화공원 평화교육센터에서 ‘2022년 한국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관리기관 협의회 실무자 워크숍’이 개최되었다. 2018년 시작되어 5회째를 맞은 올해 행사는 경상북도와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 한국국학진흥원(이사장 이철우)과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고희범)이 주관하였다. 이번 행사에는 주관기관인 한국국학진흥원과 제주4·3평화재단을 비롯하여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간송미술재단, 국가기록원,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4·19혁명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등재추진위원회 등 21개 한국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관리기관 및 유관기관의 실무자들이 참석하여 각 기관별 실적보고와 함께 공동사업을 모색하고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한국이 보유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가치를 공유하고 협력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2018년에 한국 세계기록유산을 관리하고 있는 10개 기관이 MOU를 진행하였다. 2022년에는 21개 기관 실무자들의 모임으로 확대되어 연 1~2회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 ‘한국 세계기록유산 통합 아카이브 구축사업’ 등 다양한 협력 사업을 기획·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7년 훈민정음해례본과 조선왕조실록이 처음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이래 2022년 현재 16종이 등재되어 세계에서 4번째로 세계기록유산을 보유한 국가이다.

한편,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사장 신순철)과 4·19혁명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등재 및 기념사업추진위원회(이사장 김영진)는 2021년에 각 해당 기록물을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 신청하였고, 심의를 거쳐 2023년에 최종 등재 여부가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두 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등재가 갖는 특별한 의미는 한국 민주주의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는 동학농민혁명과 그 역사적 맥을 이어받은 4·19혁명의 역사적 위상과 그 의미를 드높이는데 기여하고,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민주·평등·인권을 위한 기록물이라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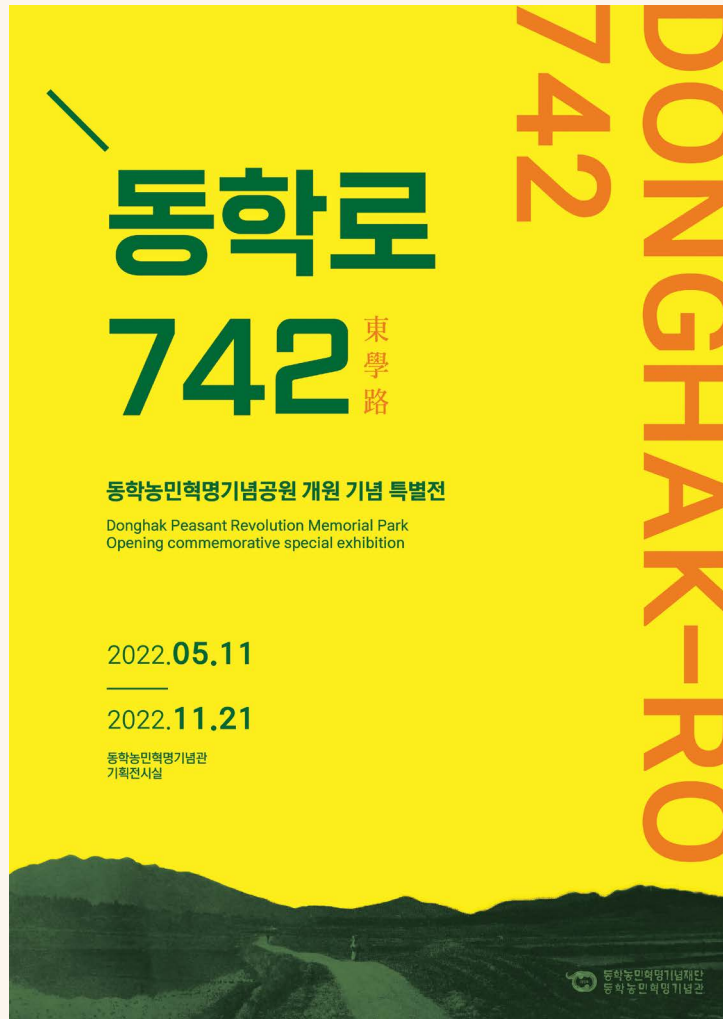
□ 강의 : 제주4.3사건과 기록유산(제주문화진흥재단 이사장 박찬식)

한국 세계기록유산	관리 기관	한국 세계기록유산	관리 기관
훈민정음해례본(1997)	간송미술문화재단	5·18 민주화운동 기록물(2011)	5·18민주화운동기록관
조선왕조실록(1997)	국가기록원	난중일기(2013)	문화재청 현충사관리소
직지심체요절(2001)	청주고인쇄박물관	새마을운동기록물(2013)	새마을운동중앙회
승정원일기(2001)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한국의 유교책판(2015)	한국국학진흥원
조선왕조 의궤(2007)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한국학중앙연구원장서각	KBS특별생방송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기록(2015)	KBS 한국방송공사
해인사 대장경판 및 제경판(2007)	해인사 대장경연구원	조선왕실 어보와 어책(2017)	국립고궁박물관
동의보감(2009)	국립중앙도서관, 한국학중앙연구원장서각	국채보상운동 기록물(2017)	국채보상운동기념사업회
일성록(2011)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조선통신사에 관한 기록(2017)	부산문화재단

□ 한국의 세계기록유산 현황(16종) 및 관리기관

4·19혁명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등재 및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조성구 사무총장은 “2023년에는 동학농민혁명 기록물과 함께 4·19혁명 기록물도 꼭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길 바란다.”며 “대한민국 헌법에도 명시된 4·19혁명은 민주주의가 꽃필 수 없는, 열악한 정치적 환경에서 비폭력으로 민주주의를 이뤘던 값진 일이었어요. 제가 우리나라 근·현대사 민주주의를 아이들에게 교육할 때 꼭 동학농민혁명에서부터 시작해서 4·19혁명, 5·18 민주화운동, 6·10항쟁, 촛불혁명에 이르기까지 그 흐름을 얘기해줍니다. 그 시발점이 저는 동학농민혁명이라고 생각해요. 동학농민혁명이 있었기에 3·1운동이 이뤄졌고, 비폭력 4·19혁명으로 이어졌다고 봅니다. 내년에는 꼭 동학농민혁명과 4·19혁명 기록물도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어 우리의 아름답고 고귀한 역사를 국내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알리고 계승하는 데 힘이 실렸으면 합니다. 저는 이 일을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과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번에 꼭 등재돼서 같이 만세 부를 날을 하루속히 기다리고 있겠습니다.”라고 뜨겁게 얘기하였다.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개원 기념 특별전  
동학로 7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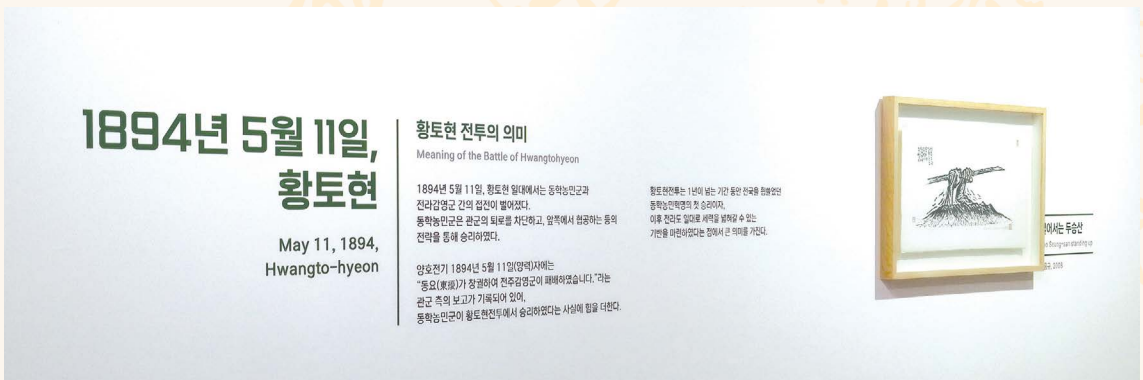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개원을 기념하는 특별전시가 열렸다. 2022년 5월 11일부터 11월 21일까지 이어질 특별전 주제는 '동학로 742'로 **1**1894년 5월 11일, 황토현 **2**그날의 역사를 기억하다 **3**2022년 5월 11일, 동학로 742 **4**황토현과 사람들 이렇게 네 파트로 전시를 구성하였다. 첫 번째와 두 번째 파트는 1894년 동학농민혁명 당시 동학농민군이 관군을 맞아 크게 승리한 역사현장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세 번째와 네 번째 파트는 황토현(동학로 742)에서 이루어진 기념사업의 발자취로 구성하였으며, 1980년대 군사정권시기 세워졌다가 대중의 손에 의해 파손된 기념비와 동학농민혁명 100주년(1994년) 기념행사 때 사용된 걸개그림 등을 볼 수 있다.





▣ 전시실 입구

## PART 1 1894년 5월 11일, 황토현



▣ 황토현 전투의 의미와 판화 '일어서는 두승산' (박흥규, 2008)

## PART 2 그날의 역사를 기억하다.



■ 황토현전적지 정화기념비



■ 기념제 사진 및 영상



■ 1994년 동학농민혁명 100주년 기념행사 때 사용된 걸개 그림



■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건립공사 계획도

황토현 전적지 정화기념비는 1981년 전두환 전 대통령의 발언에 따라 추진된 유적지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세워졌다. 이곳을 방문한 방문객들이 비문 중 “..... 전두환 대통령 유시(諭示) .....”라는 구절 중 ‘전두환’ 세 글자를 돌과 정 등으로 쪼아서 훼손시켰다. 훼손된 비석이 있던 자리에는 새로운 비석을 제작하여 세웠고, 훼손된 비석(위 전시물)은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수장고에 보관하였다.

### PART 3 2022년 5월 11일, 동학로 742



□ 기념공원 설계도



□ 기념공원 조감 영상

### PART 4 황토현과 사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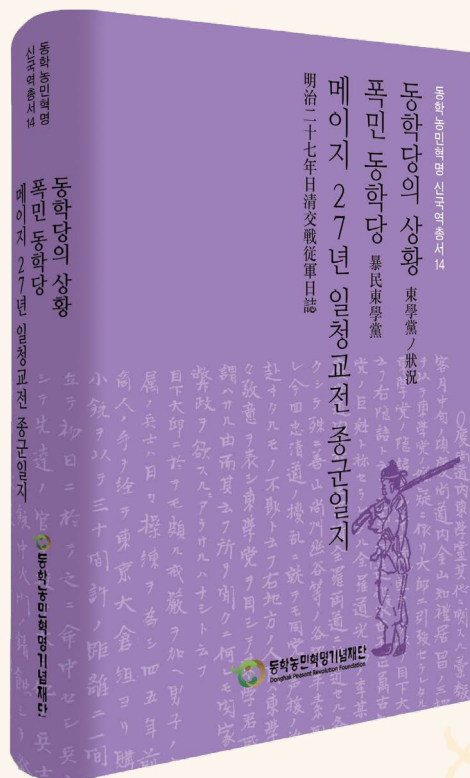
□ 황토현에서 개최된 기념행사 및 활동사진



□ 동학로 아카이브



## 『동학농민혁명 신국역총서 14』 발간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은 동학농민혁명 관련 일본 자료 『동학당의 상황(東學黨ノ狀況)』, 『폭민 동학당(暴民東學黨)』, 『메이지 27년 일청교전 종군일지(明治二十七年日清交戰從軍日誌)』를 번역하고 이를 원문과 함께 엮은 『동학농민혁명 신국역총서 14』를 발간하였다.

『동학당의 상황』은 1894년 6월 청일전쟁을 위해 설치한 일본군의 대본영(일본군 최고 통수기관)에서 동학농민군의 동향 등을 파악하고자 작성한 것이다. 여기에는 1894년 6월부터 1896년 2월까지의 상황이 기록되어 있다. 그 내용은 주한일본공사관과 일본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일본군을 조선에 파병한다는 명분, 동학농민군의 상황, 동학농민 군으로부터 압수한 물품목록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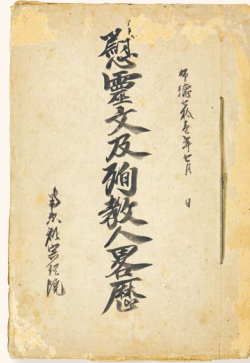
『폭민 동학당』은 1894년 9월 29일부터 1895년 3월 25일까지 부산·인천을 비롯한 일본군 병참부(조선 소재 각 지역 병참사령부에서 일본 대본영 병참총감에게 보낸 전보(電報)를 편철(編綴)한 것이다. 그 내용은 동학농민군 동정, 일본군과 조선군 출병상황, 일본군과 조선군의 전투결과 등이다.

『메이지 27년 일청교전 종군일지』는 후비보병 제19대대 제1중대의 상등병(시고쿠 지역 도쿠시마현 아와군 출신)이 1894년 7월 23일부터 1895년 2월 27일까지 쓴 종군(從軍) 기록이다. 동학농민군을 진압한 일본군 병사의 일지라는 점에서 사료적 가치가 매우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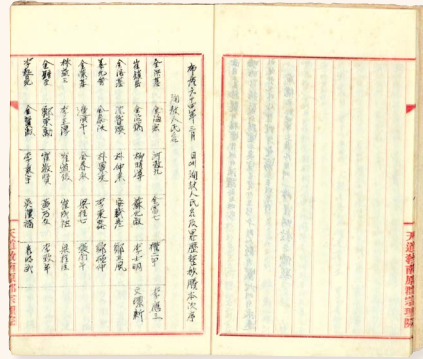
수록 내용은 동학농민혁명 종합지식정보시스템 ([www.e-donghak.or.kr](http://www.e-donghak.or.kr))에서 누구나 볼 수 있다.

## 유물 기증

『순교약력』 등을 기술한 최병현 관련 유물, 손자 최기식 기증



■ 『위령문 및 순교인약력』(필사본 표지)



■ 『위령문 및 순교인약력』(내용 및 명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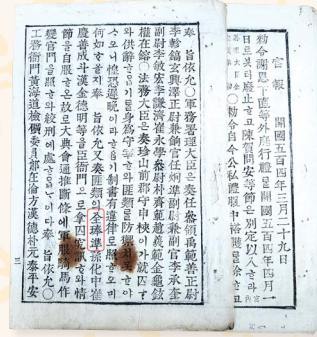
지난 7월 최기식이 『위령문 및 순교인약력』과 참여자 최병현의 천도교 활동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유물 32건(34점)을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 기증하였다. 기증한 『위령문 및 순교인약력』은 1923년 최병현이 쓴 『순교약력』을 1931년에 본인이 다시 보완하여 필사한 것이다. 기증자 최기식은 『종리원사부동학사』와 『순교약력』의 저자 최병현(1888~1957)의 손자이다

## 유물 구입

『관보』(1895년 1~3월) 등 동학농민혁명 관련 사료



■ 「관보」(1895년 1~3월)



■ 「관보」 중 전봉준 관련 기사(1895.3.29.)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은 2022년 상반기 사업으로 동학농민혁명 관련 유물 22건(76점)을 구입하였다. 구입한 유물은 1895년 1월부터 3월까지 조선정부가 고시한 관보 등이다. 구입한 유물에서 시선을 끄는 대목은 1895년 3월 29일자 관보, 법무대신이 비류(匪類) 전봉준, 손화중, 최경선, 성두한, 김덕명 등을 교형(絞刑)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재판 판결문 이외에 조선정부의 공식문서에서 동학농민혁명 지도자들의 처형사실을 확인된다는 점에서 사료적 가치가 높다.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송국섭의 손자 송종수

일 시 : 2022. 8. 4.(목) 13:00

장 소 : 충북 청원군 진천군 송종수 님 자택

**문 :** 이번 호 『녹두꽃』유족인터뷰에는 참여자 송주옥(宋柱玉, 1853~1895) 님의 증손자(曾孫子)이자 송국섭(宋國燮, 1879~1946) 님의 손자 송종수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먼저, 녹두꽃 독자들에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답 :** 안녕하세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송 주자 옥자 님의 증손이자 송 국자 섭자 님의 손 송종수입니다. 저는 1928년 정읍시 고부면 신중리 주산마을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네 살인가 다섯 살 때까지 살다가 1931년에 증조할머니께서 돌아가신 후 정읍 고부면 신중리 이웃 마을, 강고리(江古里) 52번지로 이사를 갔습니다. 고부 신중리를 떠나 강고리로 이사 간 이유는 신중리에 살던 집이 없어졌고, 강고리에 저희 송씨(宋氏) 집안 선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12대 종갓집 종손으로 마침 우리 송 국자 섭자 할아버지가 대목 기술이 있어 집을 지어서 강고리로 이사를 왔습니다. 강고리(江古里)는 고부, 소성, 줄포 가운데 지점 쪽으로 각 십리쯤 떨어져 있습니다. 강고리에서 송 국자 섭자 할아버지께서 훈장님을 하셔서 제가 할아버지께 4살 때부터 초등학교를 10살에 들어가서 3~4학년 때까지 한문을 배웠어요. 명심보감이란 노래 부르면서 배우는 추구(抽句: 오언절구 한시)를 배웠습니다. 그렇게 강고리에서 쫓 살다가 1950년 6·25 전쟁이 터지고 7월 달에 신태인으로 다시 이사를 갔어



요. 이사 갈 수밖에 없었던 게 강고리에 4개 부락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종암부락에서 남자들이 주동이 돼서 아주 빨치산 촌이 되었어요. 그 무렵 신태인에서 우리 송 기자 태자 아버지께서 이장을 했었는데 우익 좌익 따질 건 아니지만 비교적 우익이고 해서 눈치를 보고 하니까 살던 마을에서 나왔죠. 그때 지하운동 하는 놈들이 나한테 같이 운동을 하자고 포섭하러 왔는데 나는 독자이니 못한다고 거절했죠. 그 동네 사람들이 1·4후퇴 때 다 남쪽으로 도망 가버리고 나는 반대쪽 신태인으로 왔죠. 그러니까 1950년 7월에 신태인으로 이사를 와서 73년까지 23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 후 1973년 말에 서울로 갔다가 2009년에 여기 충북 진천으로 내려와 자리를 잡고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문 :** 네, 선생님의 고향 정읍시 고부면 신중리 주산마을은 동학농민혁명과 떼어 수 없는 아주 깊은 인연이 있지요? 사발통문이 발견되어 마을이 주목을 받은 게 1968년이었지요?

**답 :** 네, 제 고향 고부면 신중리 주산마을은 동학농민혁명과 인연이 깊죠. 동학농민혁명의 출발점인 고부농민봉기가 일어났던 곳이니깐요. 거기다가 저희 집안에서 발견된 사발통문을 1968년 12월 4일 제 아버지 송 기자 태자께서 신문에 발표하면서 국내 뿐 아니라 일본에서 기자나 역사학자 등의 관심을 받았습시다.

**문 :** 1894년 1월 10일(양력 2. 15.) 고부농민봉기는 동학농민혁명 도화선으로 그 의미가 매우 큰데, 이 고부농민봉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갑오년 직전 해 그러니까 1893년 계사년과 그 앞의 해인 1892년 임진년 전후 나라 안팎의 시대적 상황과 고부군을 둘러싼 대내외적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발통문이 작성된 계사년(1893) 당시 선생님 집안 상황은 어떠했는지요?

**답 :** 송 국자 섭자 할아버지가 1879년생이시니까 1894년에 16세였지요. 그때 갑오년에 저희 집안은 풍비박산(風飛雹散)나서 다 흩어졌어요. 고부군수 조병갑이 백성들을 수탈하자 고부농민들이 일어나 관아를 쳐들어갔어요. 조병갑은 도망가 버리고, 후임으로 박원명 군수가 와서 민심을 달래니까 고부 농민들이 죽창을 내려놓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민란이 끝나는가 싶었죠. 그런데 안핵사 이용태가 와서 동학 교인들을 잡아들였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집안에서도 족보를 땅에 묻었다고 합니다. 저희 증조할아버지이신 송 주자 옥자께서 묻었겠죠? 나중에 저희 송 국자 섭자 할아버지께서 현몽을 해서 족보 위치를 찾아냈어요. 지금은 그 족보를 제 아들이 가지고 있어요. 송 국자 섭자 할아버지는 갑오년 이후에도 제가 네 살 때까지 그러니까 동학농민혁명 이후 30년 넘게 신중리에서 계속 살았어요. 신중리에서 무엇을 하시고 살았는지는 잘은 기억이 나지 않는데 학식이 있어서인지 동네 구장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할아버지는 신중리에서 강고리로 이사를 온 후 1946년 2월 1일에 돌아가셨어요.

**문 :** 사발통문 서명자가 모두 20명 중에서 6명이 송씨 일가(一家)입니다. 그 중에서 서명자 송두호(父) 님과 송대화(子)·송주성(子) 님이 부자지간이고, 송주옥(父) 님과 송국섭(子) 님이 부자지간입니다. 당시 관련 자료들을 보면 신중리 주산마을의 송 씨가 일찍부터 동학에 가입하여 활동한 내력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정으로 서명자 중 송 씨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점에 대해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 :** 네, 사발통문을 발견한 후 서명자 20명 중 저희 집안 어른들(송주옥, 송국섭, 송두호, 송대화, 송주성, 송인호)이 6명이 된 것을 알았지요. 그래서 그 후손들을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 기억이 정확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2005년에 제가 유족 등록을 신청할 무렵 집안 내력을 많이 찾아봤어요. 송 국자 섭자 제 할아버지는 당신의 부친이신 송 주자 옥자님과 종조부이신 송두호 님과 동학농민혁명 때 같이 활동하였고, 옥에 갇혔다가 집에 돌아왔다고 해요. 집에 돌아와서 보니 집안사람들은 다 흩어지고 재산은 다 없어졌다고 들었습니다. 송 국자 섭자 할아버지는 혁명이 끝난 고부에서 살면서 천도교 교구장으로 활동하기도 하셨습니다.



**문 :** 아, 그러셨군요. 그럼 사발통문에 대해 좀 더 얘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발통문을 세상을 알린 분이 선생님의 아버님이신 송 기자 태자 어른이셨는데, 사발통문 발견 경위와 사회적 반응 등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답 :** 사발통문이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된 그 당시 사회적 분위기를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신태인에 살고 있을 때, 그러니까 사발통문이 발견되기 5년 전인 1963년 10월에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이 정읍 황토현에 ‘갑오동학혁명기념탑’을 세웠습니다. 그때 박정희가 5·16을 일으키고 갑오 동학난을 갑오동학혁명이라고 부르면서 탑을 세운 것입니다. 1963년 10월 15일 박정희가 대통령이 되기 열이틀 전에 이 기념탑 제막식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박정희가 유세를 하러다닐 때 “내가 한강 변을 건널 때 구한말 부패한 관리들을 쓸어내기 위해서 일어난 전봉준 장군 심정 같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렇게 해서 정읍 황토현에 갑오동학혁명 기념탑이 세워지니까 “동학”이란 말들을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는 “동학난(東學亂)”이라고 해서 우리 집안이 동학농민 혁명에 많이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할아버지께서는 저한테 동학농민혁명 관련된 얘기를 일절 안 해줬으니까요. 그렇게 갑오동학혁명 기념탑이 세워진 이후 1967년 말 정읍갑 오동학혁명기념사업회가 창립되었고, 그 다음해부터인가 갑오동학문화제가 해마다 열렸지요. 정작 동학농민혁명 그러면 고부의 저의 선친(先親)이신 송 기자 태자 분이 중심이 되어야 마땅한데 그렇지가 못하고 별로 아는 것도 없는 사람들이 뜻도 모르고 갑오동학혁명기념사업회에 회원이라면서 떠들고 난리를 치고 다니고 그랬어요. 그때 저의 송 대자 화자 할아버지(종증조부)의 아들 송 후자 섭자 할아버지(종조부)가 신중리에 계속 살았어요. 집안사람들이 후자 섭자 할아버지(종조부) 집에서 족보를 내놓고 이런저런 얘기를 한 모양이에요. 그 때 족보 속에서 무슨 종이가 우리 아버지(송기태) 눈에 번쩍 뜨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그게 사발통문인 거예요. 그때가 추울 때인데 1968년 음력으로 10월 15일 (양력 12월 4일)에 발견되었죠.

**문 :** 사발통문이 세상 밖으로 나온 이듬해 1969년 신중리 주산마을 앞에 ‘동학혁명모의탑’이 건립되었는데, 어떻게 건립하게 되었는지 그 배경과 이후 경과 등에 대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 :** 저의 아버지(송기태)께서 고생고생해서 사발통문에 기록된 후손을 다 찾았어요. 후손들을 찾은 다음에 뭔가 사업을 해야겠다 싶어서 탑을 세우기로 하고 쌀 한가마니씩 내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당시는 먹고살기도 힘든 때여서 사람들이 쌀을 잘 못 내니까 제 아버지께서 사비를 들여 1969년에 탑을 세웠어요. 그래서 빚도 지고 그랬어요. 결국 아버지께서는 71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힘들게 1969년 12월 1일인가? 동학혁명모의탑이 세워졌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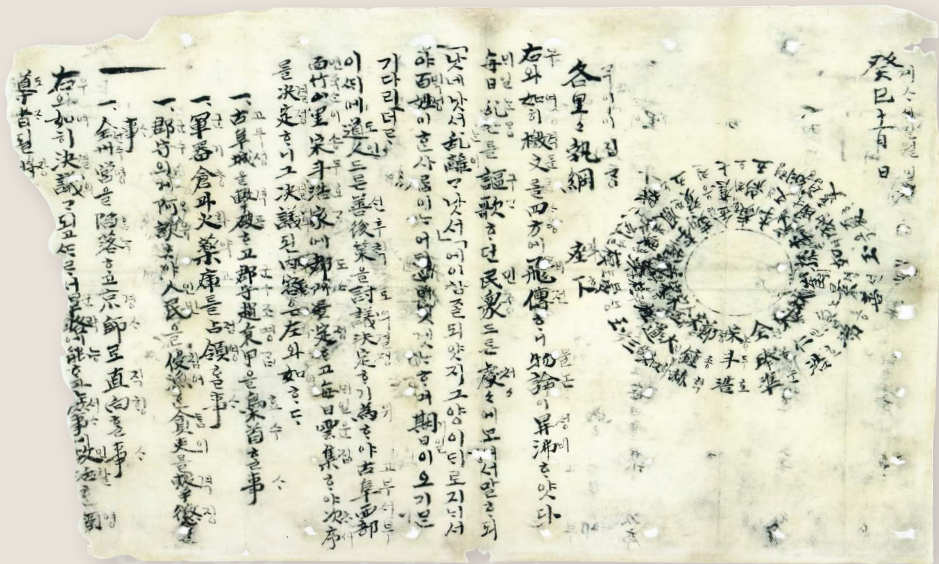
그 탑 뒷면 비문을 제가 썼어요. 그리고 사발통문을 그 탑 안에 묻었죠. 사발통문을 왜 탑 안에 왜 묻었는지는 이유는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옛날에는 사람이 죽으면 절에서는 사리 같은 것은 탑에 넣듯이 동학혁명모의탑 안에 사발통문을 함께 넣었던 것 같아요.

**문 :** 네, 동학혁명모의탑을 세우는데 선생님의 아버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셨군요. 동학농민혁명사에서 동학농민군이 직접 남긴 자료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측면에서 필사본이긴 하지만 그래도 사발통문의 사료적 가치가 아주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 12월 28일에 사발통문과 일괄문서가 전라북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었지요. 문화재 지정 경위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 :** 네, 사발통문 발견 소식이 신문에 기사로 나가니까 정읍군이나 정읍지역에서 활동하던 갑오동학혁명기념사업회 등에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게 가짜니 뭐니 하니까 문화공보부에서 진위여부 감정을 요청했어요. 그래서 탑에 넣었던 사발통문을 다시 꺼내 감정을 했죠. 그때 이 일을 수행한 감정위원이 이용직 박사였는데, 감정 결과는 “진위여부는 확정할 수는 없으나 종이 재질이 그 당시 것으로 판단되고, 먹의 색깔 등으로 봐서는 조금 이상한 점이 있다. 그리고 글씨체가 한사람의 글씨체로 되어 있는 것이 이상하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 농민들이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한 사람이 대필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국가문화재로 지정할 가치는 없으나 역사적으로 중요한 자료이므로 지방문화재로 지정하길 바란다.”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전라북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 :** 사발통문을 독립기념관에 기탁했다가 찾아온 적이 있지요? 이후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 기탁하셨는데, 그 경위에 대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발통문(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233호, 2015.12.28. 지정)

**답 :** 사발통문은 내가 가지고 있다가 독립기념관에 기탁했었죠. 독립기념관으로부터 기탁 요청이 왔던 걸로 기억해요. 팔십 몇 년인가 아버지 제삿날 7월 5일에 독립기념관에 우리 여동생들이랑 같이 가서 기탁을 했어요. 그런데 1994년 신중리 주산마을 앞에 세워놓은 모의탑이 없어지는 해괴한 일이 벌어졌어요. 하여간 그런 과정에 독립기념관 측에 반환요청을 했고, 그 뒤 2003년도엔가 전주역사박물관인가? 빌려줬다가 나중에 제 아들(송택렬)과 상의해서 같이 2015년 2월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 사발통문과 일괄문서 4종(송두호 교장 임명장, 송대화 대접주 임명장, 이알수 별교장 임명장, 교장 임명장)을 기탁하게 되었지요. 재단에서 사발통문과 일괄문서를 기탁 받은 후 전라북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애를 써 주셨습니다.

**문 :** 선생님, 말씀 중에 모의탑이 사라진 해괴한 일이 있었다고 하셨는데, 그 탑이 1969년 신중리 주산마을 앞에 선생님 집안에서 세웠던 ‘동학혁명모의탑’이죠? 그 경위에 대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 :** 제가 정읍 고부 주산마을(대피)에 시제를 모시러 매년 갔었어요. 그때는 교통이 불편하니가 가면 신중리에서 하루 묵고 왔어요. 이후 교통이 좋아져서 당일치기로 주산마을(대피)을 들리지 않고 강고리를 곧장 가곤해서 모의탑을 자주 보지 못했어요. 그러던 93년 봄, 지금 주산마을 앞에 있는 모의탑 자리에 도로가 생긴다는 말이 있어서 가보았어요. 그런데 웬일인지 모의탑이 없어지고 그 기반부인 밑동만 남아있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탑의 행방을 알아보니 임두영이라는 사람이 주산리(대피) 마을회관 앞 무명동학농민혁명위령탑이 있는 곳으로 옮겨져 있더라구요. 하여간 그래서 그 이듬해인가? 모의탑을 원래 자리로 가져다 놓았어요. 새로 옮겨 놓으면서 기반을 한 단 더 높였어요.



▣ 동학혁명모의탑 (전북 정읍시 고부면 신중리 주산마을)

**문 :** 네, 모의탑이 옮겨졌다가 다시 돌아온 적이 있었지요. 사발통문을 발견하여 언론에 공개하고, 다시 이듬해 동학혁명모의탑을 건립하는 과정 등등을 겪으면서 여러모로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지요? 하시고 싶은 말씀 많으실 텐데 생각나는 대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 :** 사발통문이 발견된 후 이와 관련된 이런 저런 얘기들이 수없이 많이 오갔습니다. 그 중에는 사실과 맞지 않은 내용도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제가 이렇게 아직까지 살아 있으니 사발통문과 관련하여 궁금한 내용이 있거나 그러면 저한테 확인을 요청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고부에 계속 살았다면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정확한 내용을 전달했을 텐데 신태인으로 이사하여 살면서 주산마을을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직접 설명할 기회를 많이 놓친 것이 못내 아쉽습니다.

**문 :** 선생님께서 동학농민혁명 100주년 무렵부터 동학농민혁명유족회 활동에 참여하셨지요? 유족회 관련한 내용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 :** 저는 처음에는 동학농민혁명유족회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정읍 주산마을에 살고 있는 송기평 씨 집에 가서 얘기를 나누면서 유족회 손주갑 씨 얘기를 듣게 되었어요. 그때서야 유족회가 있는 줄 알았지요. 그래서 제가 1994년 서울에서 살 때 서울 종로(공평동) 유족회 사무실을 찾아가 손주갑 씨를 만났어요. 손주갑 씨가 사발통문 서명자 중 한 분인 손여옥이라는 분의 손자잖아요? 그 후로 손주갑 씨와 함께 동학농민혁명유족회 관련하여 활동에 참여해왔습니다.





**문 :** 네, 선생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처럼 오래오래 건강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끝으로 마무리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답 :** 참 격세지감(隔世之感)입니다. 박정희가 혁명이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반란이라서 입도 뻥긋 못하고 살았는데, 1960년대 황토현 정상에 갑오동학혁명기념탑이 세워진 후 그래도 내놓고 갑오년의 역사를 얘기할 수 있었지요. 그렇지만 그 뒤로도 오랫동안 동학농민혁명은 제대로 빛을 받지 못한 채 여전히 반란으로 치부되었습니까? 그러다가 1980년대 민주화운동이 성장하였고, 1994년 동학농민혁명이 백주년을 맞으면서 전국적으로 기념사업단체가 창립되어 기념사업을 추진하면서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대중적인 역사인식이 전변되었잖아요? 그래서 2004년 특별법이 제정되고, 2019년에는 동학농민혁명기념일까지 제정되었잖아요. 세상이 이렇게 달라졌다고 생각하니까 감개가 무량합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애를 쓴 역사학계나 기념사업을 추진해온 기념사업단체 관계자, 그리고 동학농민혁명 정신 선양사업을 위해 애를 쓰고 있는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문 :** 네, 선생님. 긴 시간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동학농민혁명 추모관, 전시관(박물관)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내(內)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넋을 기릴 수 있는 추모관이 조성되었고, 동학농민혁명이 지닌 역사적 의미와 그 위상을 동아시아와 세계사적 차원에서 조망할 수 있도록 전시콘텐츠를 구성·설치한 전시관(박물관)이 조성되었다. 지난 5월 11일 동학농민혁명기념일에 개관한 기념공원 내 추모관과 전시관의 규모는 각각 연면적 225.82㎡과 1078.58㎡이다. 전시관은 국립박물관으로 등록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 전시관(박물관) 기획의도

‘모든 역사는 현대사다.’(All history is contemporary history) 지금으로부터 128년전인 1894년 갑오년에 일어난 동학농민혁명은 한반도는 물론이고 동아시아 전역을 격동시켰던 일대사변이었다. 이 사건은 서구 제국주의 열강이 물질 중심의 서구 근대 자본주의 문명을 세계적으로 확장시키는 과정에서 빚어진, 동아시아의 지역질서를 전변시킨 거대한 폭랑(暴浪)이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오랜 세월 동안 중국 중심으로 움직이던 동아시아 지역질서가 서구 제국주의 열강이 주도하는 질서로 전환되었다. 한편, 조선 내부적으로는 낡은 봉건제도를 무너뜨리고 근대 만민평등 세상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어 한국 근대 민주주의 운동의 시작 혹은 민족주의 운동의 뿌리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은 일제강점기, 해방이후 세계사적 차원에서 전개된 동서냉전체제 구축시기에 빚어진 민족내부의 극심한 좌우대립, 민족분단 그리고 한국전쟁 등으로 점철된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서 사교집단 동학비적(東學匪賊)들의 ‘반란사건’ 혹은 특정지역(전라도)에 국한된 ‘지역적 민란’으로 축소·왜곡되었다. 이런 현상은 봉건질서를 존속시키려는 전제왕조의 견고한 벽과 물질문명을 앞세운 서구 제국주의 열강의 침략 앞에서 한국 근현대사가 극심한 굴절(屈折)과 부침(浮沈)을 겪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역사학계는 물론이고 민족민주운동 선상에서 이 사건을 반봉건, 반외세 기치를 들고 일어난 아래로부터의 혁명이라는 의미를 부여하였다. 그 결과물로 건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기념시설물들로 전북 정읍시 황토현전적지 ‘전라북도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전북 전주시 풍남동 ‘동학혁명기념관’, 전남 장흥군 석대들전적지 ‘장흥동학농민혁명기념관’, 충남 태안군 백화산자락 ‘태안동학농민혁명기념관’ 등이 있다. 여기에 더하여 2022년 5월 11일 정읍 황토현전적지 일원에 조성된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의 중심시설로 동학농민혁명전시관(박물관)이 개관되었다.

반란과 혁명이라는 극단적인 인식이 공존했던 20세기를 거치고, 또 다른 세기로 들어선 시점에서 건립된 이번 기념관은 기존의 기념관과는 다른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야할 시대적 소명을 떠안았다. 한 세기(世紀)가 지난 오늘날, 사람의 기본권(人權)과 물질을 중심에 둔 소위 서구의 근대 자본주의 문명이 수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급격한 지구온난화에 따른 재앙에 가까운 기후변화, 국가와 국가 간의 양극화, 국가 내부의 계급계층 간의 양극화 등을 그 사례로 들 수 있다. 이에 기존의 전시관이 지향했던 관점, 대체로 한국사적 관점에서 사건의 전개과정을 나열하는 패턴을 지양하고, 동학농민혁명사를 한국사를 넘어 동아시아적 차원에서 그리고 세계사적 차원에서 조망하고자 관점을 제시하는 기념관(박물관)으로 전시 콘텐츠를 구성하였다. 21세기 지구촌 시대,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세계사적으로, 인류사적으로 제기된 제반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기초를 제공하고자 노력하였다.

새롭게 건립된 전시관이 동학농민군이 추구했던 ‘사람이 하늘이다’는 차원 높은 인본주의 정신은 물론이고, 만생명(萬生命)을 하늘로 여기면서 나눔과 배려를 실천한 유무상자(有無相資) 정신의 현재화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글 | 문병학(기획운영부장, 박물관 전시기획 총괄)



## 동학농민혁명 추모관

“1894 그날의 기억”



추모관 입구



추모관 복도

“1894년 그날의 기억”, “넋이여, 갑오년의 꽃넋이여” 등의 주제로 콘텐츠가 구성된 추모관은 복도와 추모관 내부로 나누어 구성되어 있다. 추모관으로 들어서는 입구에는 “1894년 그날의 기억”이라는 슬로건 아래 1894년 갑오년, 동학농민혁명 당시 전국 각 지역에서 벌어졌던 주요 전투지를 소개하고 있다.

추모관 입구에서 내부로 이어지는 복도에는 “넋이여, 갑오년의 꽃넋이여”, “넋이여, 세기(世紀)를 밝힌 꽃넋이여”라는 글씨를 빛으로 연출하여 시각적 효과를 극대화하였다. 추모관 내부 벽면에는 2004년 3월 제정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2004. 9.) 때부터 2022년 5월 11일 추모관 개관까지 조사·등록된 참여자 3,694명의 활동지역과 함자(銜字)를 자연산 오석(烏石, 충남 보령 웅천석)에 새겨 모셨다.

추모관 내부 중앙에는 천창(天窓)으로부터 내려오는 빛이 중앙의 연못 형태로 형상화된 물 위로 내리고 그 빛을 따라 노란색의 녹두꽃이 피어나도록 구성하여 참여자 영령께 현화하는 엄숙한 분위기를 연출하였다. 참여자 명패가 모셔진 세 벽면 이외에 나머지 한 벽면에는 갑오년의 역사, 동학농민혁명사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의 의미를 상징적으로 담아낸 영상을 배치되었다. 영상의 주요 줄거리는 어린 아이를 등에 업은 아낙네부터 마을의 노인에 이르기까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떨쳐 일어난 갑오년 당시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 추모관 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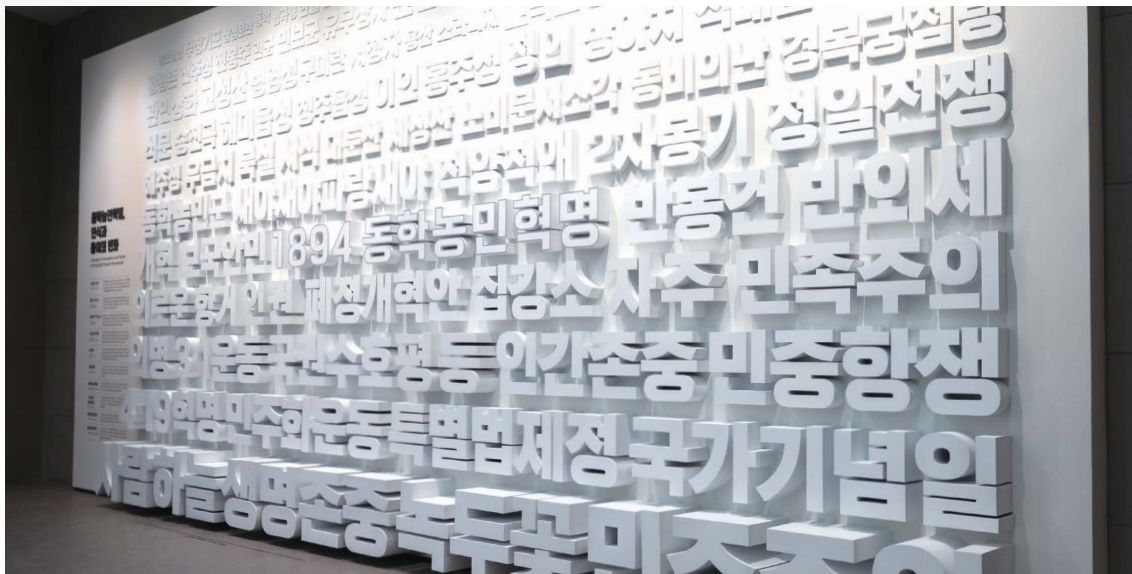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패



## 동학농민혁명 전시관(박물관)

“1894년 그날의 혁명을 다시 세우다”



▣ 전시관 전면

전시관은 **1**민중의 힘으로 사회를 개혁하다 **2**전국에서 민중 민족 항쟁이 일어나다 **3**일본 제국주의 침략에 맞서 싸우다 **4**동학농민군의 고난과 희생을 되새기다 **5**한국 근대 민주정신의 큰 줄기가 되다 등 관점을 제시하는 것으로 구성하였다. 이번 호부터 5차례 걸쳐 전시관(박물관)을 ‘지면 전시(紙面展示)’ 형태로 소개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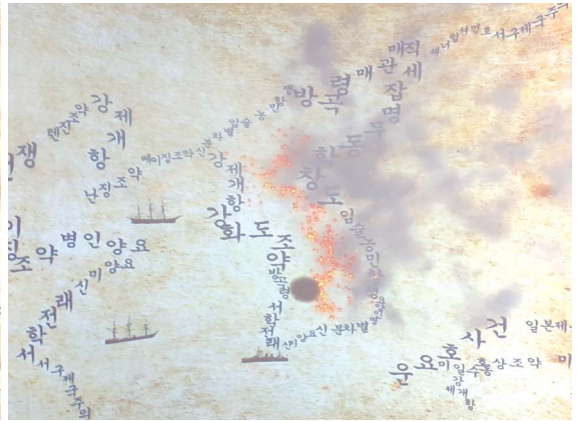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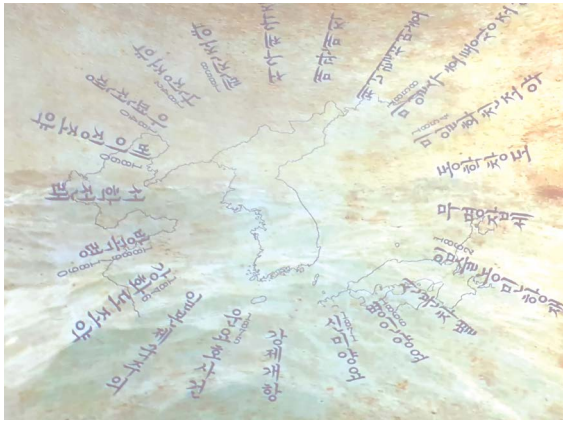
### Intro 혼란의 시대 1894년



▣ 전시관 내(內) 영상

동학농민혁명전시관에 들어서면 전면에 동학농민혁명 주요 메시지를 ‘글꼴 디자인기법’(Typo wall design)으로 연출하였다. 전시관 첫 번째 콘텐츠는 19세기, 서구 제국주의 열강이 동아시아 침략하던 때의 시대상황을 영상으로 담았다. 사발통문 형태를 영상의 기본바탕으로 삼아 사발통문 서명자 20명의 이름 대신 아편전쟁, 강화도조약, 텐진조약, 미일수호통상조약, 청일전쟁 등을 배치하여 1894년 전후 조선을 둘러싸고 빚어진 격동의 시대상황을 보여준다.





■ 전시관 내(內) 영상

## PART 1 민중의 힘으로 사회를 개혁하다

우리는 비록 초야<sup>草野</sup>의 백성이나  
 나라가 망해가는 꼴을 좌시<sup>坐視</sup> 할 수 없어  
 온 나라 사람이 마음을 함께하고 의논을 모아  
 지금 의로운 깃발을 들어  
 보국안민<sup>輔國安民</sup>을 생사<sup>生死</sup>의 맹세로 삼노라

19세기 후반 거둬들인 농민 봉기와 동학사상은 민초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고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지켜 백성들을 편안히 살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하였다. 농민군은 스스로 사회를 개혁하고 외세의 침략을 물리치기 위해 힘을 합쳤고, 마침내 1894년 동학농민혁명을 일으켰다. 동학농민군은 '전주화약', '집강소 활동', '제2차 봉기'를 거치며 목숨을 건 투쟁 속에서 새로운 민주적 질서의 가능성을 만들어 나갔다. 반일 투쟁이 있던 시기에는 전투에 직접 가담하지 않더라도 신분과 연령, 성별을 막론하고 여러 백성들이 음식을 해 나르거나 첩보 활동을 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농민군을 도왔다.

1

### 민중의 힘으로 사회를 개혁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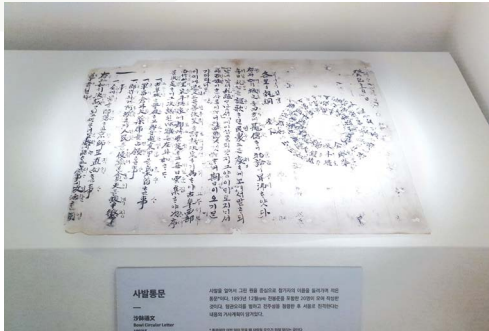
19세기 후반, 민초들은 3백여년 동안의 지배체제, 특히 조선의 신분제에 반감을 품고 봉기를 일으켰다. 이 때 나라를 옹호하는 백성들의 힘으로 민중의 힘으로 사회를 개혁하고, 마침내 1894년 동학농민혁명을 일으켰다. 동학농민군은 '전주화약', '집강소 활동', '제2차 봉기'를 거치며 목숨을 건 투쟁 속에서 새로운 민주적 질서의 가능성을 만들어 나갔다. 반일 투쟁이 있던 시기에는 전투에 직접 가담하지 않더라도 신분과 연령, 성별을 막론하고 여러 백성들이 음식을 해 나르거나 첩보 활동을 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농민군을 도왔다.

Through the late 19th century, the Korean people began to feel the need to change the social system, especially the rigid class system. In 1894,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broke out, led by Hong Gyeon-do. The Donghak Peasant Army fought the Jeonju Peace Treaty, the Jikgyangso activities, and the 2nd Uprising, eventually leading to the establishment of a new democratic system.

The Donghak Peasant Army was a mass movement of peasants who fought for social reform and national independence. They were led by Hong Gyeon-do and other leaders who believed in the power of the people. The Donghak Peasant Army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the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 개혁에 나선 민중

### 사발통문(沙鉢通文), 1893년



사발통문에는 1893년 12월(양력 기준) 전봉준을 포함한 20명이 모여 사발 모양으로 둥글게 서명한 문서이다. 탐관오리를 벌하고 전주성을 점령한 후 서울로 진격한다는 내용의 거사계획이 담겨 있다.

#### 사발통문 일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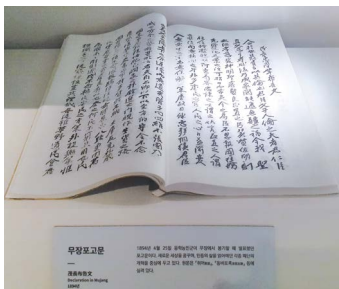
매일 어지러움과 망함을 노래하던 민중들은 곳곳에서 모여 말하기를  
났네 났어 난리가 났어 에이 참 잘 되었지  
그냥 이대로 지내서야 백성이 한 사람이나 어디 남아 있겠나 하며  
그 날이 오기만 기다리더라 날이 오기만 기다리더라  
이때에 도인들은 선후책을 토의하고 결정하기 위하여  
고부 서부면 죽산리 송두호의 집에 도소를 정하고  
매일 운집하여 순서를 결정하니 그 결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하나, 고부성을 격파하고 군수 조병갑을 효수<sup>1)</sup>할 것  
하나, 군기창과 화약고를 점령할 것  
하나, 군수에게 아첨하여 인민을 침어<sup>2)</sup>한 탐관오리를 징계할 것  
하나, 전주영을 함락하고 서울로 곧바로 향할 것

- 1) 효수梟首 : 형벌의 일종으로 죄인의 목을 베어 높은 곳에 매달아 놓음
- 2) 침어侵漁 : 백성을 괴롭히고 뺏살게 함

## 봉기에 나선 민중

### 무장포고문(茂長布告文) | 취어(聚語) 1895년



1894년 4월 25일 동학농민군이 무장에서 봉기할 때 발표했던 포고문이다. 새로운 세상을 꿈꾸며, 민중의 삶을 엮어매던 각종 폐단의 개혁을 중심에 두고 있다. 원문은 『취어聚語』, 『동비토록東匪討錄』 등에 실려 있다.

#### 무장포고문 일부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다. 근본이 깎이면 나라가 잔약해지는 것은 뻔한 일이다. 그런데도 보국안민輔國安民의 계책은 염두에 두지 않고 바깥으로는 고향집을 화려하게 지어 제 살길에만 골몰하면서 녹유만을 도둑질하니 어찌 옳게 되겠는가? 우리 무리는 비록 초야의 유민이나 임금의 토지를 갈아먹고 임금이 주는 옷을 입으면서 망해가는 꼴을 좌시할 수 없어서 온 나라 사람이 마음을 함께하고 억조창생이 의논을 모아 지금 의로운 깃발을 들어 보국안민을 생사의 맹세로 삼노라. 오늘의 광경이 비록 놀랄 일이겠으나 결코 두려워하지 말고 각기 생업에 편안히 종사하면서 함께 태평세월을 축수하고 모두 임금의 교화를 누리면 천만다행이겠노라.

## ■ 정부와 농민이 함께 세운 자치 기구

### 집강소執綱所



■ 집강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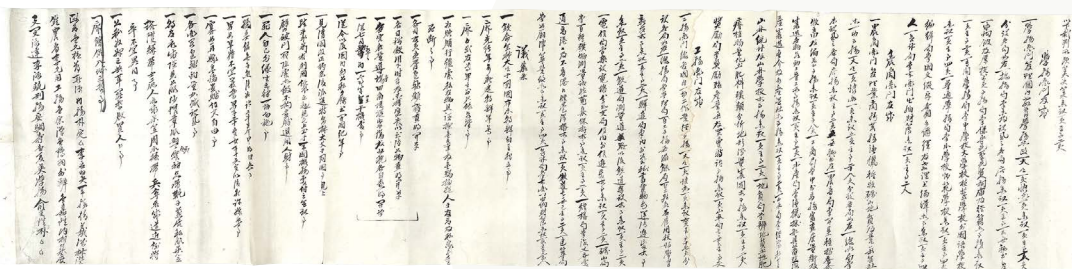
■ 김제 원평집강소

1894년 6월, 전주성을 점령하고 있던 농민군은 청나라와 일본이 조선으로 군대를 보내 자칫 양국의 전쟁터가 될 수 있다는 위기를 맞게 되자 관군과 '전주화약'을 맺고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가 집강소를 설치하고 개혁활동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청일 양국 간의 전쟁 위기가 고조되자 농민군의 지도자인 전봉준은 전라감사 김학진을 만나 '관민상화(官民相和)'에 합의하고 나라의 위기를 함께 극복하기로 약속하였다. 이후 각 고을 관아에 집강소를 설치하고, 관과 농민이 서로 도와 체계적인 개혁을 추진했다. 대규모 민중 운동을 일으킨 백성들이 정부와 협력하여 자치 기구를 세우고 국가의 위기를 함께 극복하고자 한 사례는 세계사에서도 드문 일이다.

## ■ 아래로부터 민주주의를 실현하다

### 의안(議案), 1894년

의안(議案)은 1894년 6월 작성된 문서로 갑오개혁의 실시에 앞서 작성된 개혁안의 초안이다. 동학농민군이 요구했던 폐정 개혁안의 일부로 노비제를 폐지하고 천민을 해방하는 신분제 개혁안이 포함되었다.





## 녹두꽃과 동백꽃으로 여는 세상

— 인권과 평화의 역사 속으로 —

정석준 전주 온빛중학교 2학년



▣ 동학농민혁명 추모관·전시관 방문(2022.7.)

평소 역사에 관심이 많던 나는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보면서 “인권과 평화”라는 주제가 담겨있는 역사적 사건들을 좀 살펴보고 싶었다. 내가 살고 있는 고장에서 일어난 인권 관련 역사 현장을 찾아보던 중 문득 초등학교 때 방문한 적이 있는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이 떠올랐다. 학교에서 동학농민혁명에 대해 배우긴 했지만 자세히는 알지 못해서 다시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을 찾았다. 오랜만에 다시 찾은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은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동학농민혁명 추모관·전시관까지 새로 생겨 볼거리가 많아졌다.

나는 해설사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며 전시관을 천천히 둘러보면서 동학농민혁명이 왜 일어났고, 어떻게 전개됐으며, 또 무엇을 추구했는지 알 수 있었다. 동학농민혁명은 모두가 평등한 세상을 실현하고자 했고 일본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고자 일어난 소중한 우리의 역사였다. 동학농민군은 일본군과의 전투에서 비록 패했지만 “평등, 자유, 존중”의 정신은 3·1운동,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으로 이어져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의 기초를 다져놓았다.

동학농민혁명이 추구했던 ‘사람이 하늘이다’라는 정신을 인류가 지켜 나아간다면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세상이 될 수 있을 것만 같았다. 끝으로 추모관에 들러 동학농민군께 묵념하면서 ‘앞서 농학농민군이 뿌려놓은 녹두 씨앗들을 이제 우리 세대가 꽃으로 피워내겠다’고 다짐하였다.



동학농민혁명 전시관 전시해설을 들으며



동학농민혁명 전시관을 나오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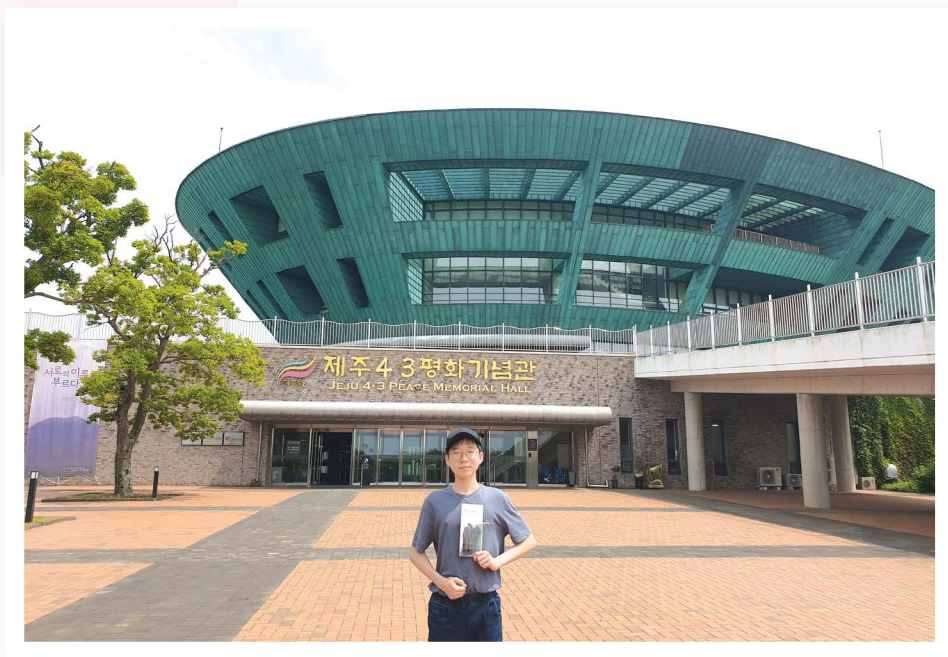


동학농민혁명 추모관 앞



동학농민군을 추모하며





▣ 제주4·3평화기념관 방문(2022.7.)

동학농민혁명 추모관·전시관 견학에 이어, 나는 마침 제주도를 여행할 기회가 있어 제주도에 있었던 인권 관련 역사들을 찾아보았다. 그 중에서도 ‘제주4·3’이 많이 검색되어 제주4·3평화기념관을 방문했다. 학교에서도 한국사에 대해 배우고 있지만 우리나라 근·현대사에 대해서는 모르는 내용이 많았다. 특히, 제주 4·3에 대해 전혀 몰라서 해설사 선생님의 안내를 받으며 전시실을 꼼꼼히 둘러보았다.

제주4·3은 미군정기에 발생하여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까지 7년여 동안 걸쳐 무고한 제주 도민들이 희생당한 비극적인 사건이었다. 사건의 발단은 1947년 3월 1일(3·1절) 기념식때 지나가는 기마경찰의 말발굽에 어린아이가 다치게 되면서 경찰과의 충돌에서 비롯된다. 게다가 한국전쟁 이후 미군정이라는 당시 혼란한 정치적 상황과 맞물려 통일 정부를 염원한 제주도민은 남한 단독선거와 단독정부를 반대하기에 이른다. 이 과정에서 1948년 4월 3일 남로당 제주도당 무장대가 봉기한 이래 1954년 9월 21일까지 경찰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인명 피해가 무려 2만 5,000~3만여 명이나 발생했다고 한다.

근·현대사에 대해 잘 몰랐던 나는 우리나라가 일제강점으로부터 해방되고 6·25 한국전쟁 이후 정부가 자연스럽게 수립된 줄 만 알았다. 학교에서 한국사를 배우면서 ‘우리나라는 참 전쟁이 많았구나’ 생각했었는데 이 작고 아름다운 섬에서조차 이렇게 큰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다는 것이 슬프면서도 충격적이었다.

그리고 ‘이런 끔찍한 사건을 왜 아직까지 내가 몰랐을까’ 하는 미안한 마음이 들면서 친구들한테도 ‘제주 4·3’에 대해 알려주고 싶었다. 전시관을 나오면서 ‘제주 4·3은 평화·통일·인권의 상징입니다’ 문구가 가슴에 와 닿았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세상에는 한반도를 넘어 지구촌에 평화가 깃들길, 그리고 모든 사람의 생명과 인권이 존중되길 염원해보았다.





▣ 제주4.3.평화기념관 전시해설을 들으며



▣ “제주4.3은 평화·통일·인권의 상징입니다” 문구 앞에서



▣ ‘잊지 않겠다’고 방명록을 쓰면서



▣ 조형물 ‘동백꽃’ 앞에서

\*이른 봄꽃들이 대체로 그렇듯 겨울꽃인 동백나무꽃(冬栢花), 동백꽃도 꽃이 질 때 꽃봉우리가 송두리째 떨어진다. 그 모습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제주4·3사건 희생자의 모습을 닮았다 하여 4·3사건의 상징하는 이미지로 활용되고 있다.

## (사)장흥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를 찾아서

일 시 : 2022. 8. 19(금) 11시

장 소 : 장흥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사무실



**문병하** 안녕하세요. 이번 호 소식지 『녹두꽃』 지역대담 코너에 전라남도 장흥군에서 동학농민혁명 정신 선양사업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사단법인 장흥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위익환 이사장님을 모셨습니다. 이사장님 반갑습니다. 먼저 녹두꽃 독자 분들에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위의환**

녹두꽃 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단법인 장흥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위의환입니다. 저는 장흥군 대덕읍에서 태어나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고향에서 다녔습니다. 이후 광주에서 고등학교를 다녔고, 서울에서 공부를 하다 1978년 말 농민운동에 뜻을 품고 귀향하여 농민운동을 열심히 했고, 농민운동의 연장선에서 반핵운동, 환경운동까지 했습니다. 1990년 전국농민회총연맹이 창립된 후 서울로 올라가 1992년 2월까지 총무국장과 연대사업국장 등을 맡아 일하다가 1992년 3월 다시 고향 장흥으로 내려와 현장에서 농민운동을 하면서 장흥군농민회장을 역임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1994년을 전후하여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였고, 2004년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장흥지역 시민사회단체와 동학농민혁명유족회, 천도교 장흥교구 등이 힘을 합하여 임의단체로 장흥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를 출범시켰습니다. 그렇게 활동하다가 2013년 장흥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를 사단법인으로 등록이 필요하여 전라남도예 신청서를 제출하여 인가를 받아 제가 현재 3대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문병학**

이사장님 고향인 대덕읍이 동학농민혁명 당시에는 대흥면이었지요?

**위의환**

네, 그렇지요. 지금의 대덕읍이 동학농민혁명에는 대흥면으로 불렸습니다. 이곳은 장흥지역의 동학농민군 중심세력이 활동했던 곳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희생자도 많이 나왔지요. 그래서 동학농민혁명 이후 일제강점기 내내 항일독립운동이 가장 치열하게 전개된 곳이기도 합니다. 제가 동학농민혁명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1970년대 이기백 교수의 한국사신문을 공부하다가 동학농민혁명 당시 장흥 근처의 전투와 일본군의 토벌 상황을 표시한 지도에 장흥이 크게 부각되어 있는 것을 보고 농민운동의 과제로 장흥지역 동학농민혁명의 진실 규명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문병학**

이사장님께서서는 농민운동가로서, 향토사학자로서 동학농민혁명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쏟아부어오셨잖아요. 이점에 대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의환**

향토사학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5살 때부터 할아버지 무릎에서 풍월로 천자문을 배운 죄가 큼니다.(웃음) 제가 중학교 때 교과과정에서 한자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가풍(家風) 때문에 한문 공부를 계속하였습니다. 한문을 공부해야 용돈이 짹짹하게 생겼기 때문에 처음에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한문 공부를 했지만, 사서(四書)를 공부한 후 오경(五經)까지 공부해야겠다는 욕심이 생겼습니다.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사마천의 사기, 노장사상, 한시까지 공부하였는데 이것이 나중



에 향토사학에 관심을 갖게된 배경이라면 배경입니다.(웃음) 동학농민혁명 관련 기록이라는 게 대체로 한문으로 되어 있어서 누군가가 번역을 하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문을 좀 하니가 장흥동학농민혁명 관련 원전 자료를 발굴하고 번역하여 쓴 것들이 꽤 될 것입니다. 기억나는 것들로 『장흥동학농민혁명사료집』(편역저編譯著, 2006.), 『장흥동학농민혁명사료총서Ⅰ·Ⅱ』(역저譯著, 2009.), 『장흥동학농민혁명과 그 지도자들』(2013.) 등입니다. 나아가 제가 몇 년 전부터 쓴 장흥지역 동학농민혁명을 넘어 전국사로서의 동학농민혁명에 관한 글들로 200자 원고 3,000매 가량의 『위 의환의 동학농민혁명 이야기』 초고본이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출판할 생각입니다. 이밖에도 장흥문화원이나 호남학진흥회 학술지, 각종 학술대회 등에 발표한 논문들도 상당히 될 것입니다.

### 문병학

네, 선생님. 장흥지역 동학농민혁명과 기념사업의 역사에서 선생님의 활동을 빼놓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선생님께서 장흥지역 기념사업을 시작한 게 벌써 40년 가까이 되었지요? 아니랄 얘기로 돈도 되지 않는 일에 정성을 다한 선생님의 노고에 숙연해집니다. 전국 각각의 지역마다 동학농민혁명의 지역적 특성을 보입니다. 이사장님께서서는 전남 장흥지역의 동학농민혁명을 특성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 위의환

무엇보다도 동학농민혁명의 대미(大尾)를 치열하게 마감지은 격전지였다는 점에서 그 특성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군과 일본군의 지휘를 받은 관군이 가장 잔인하게 농민군을 학살한 곳 중의 하나가 장흥지역이잖습니까? 농민군이 우금치와 논산 등지에서 패배한 후 꺼져가는 혁명의 불씨를 되살리기 위해 장흥 지역에서는 1894년 11월 21일 웅치면 기포와 11월 25일 대흥면에서 기포하여 12월로 접어들어서면서부터는 장흥지역을 석권하였습니다. 그 여세를 몰아 벽사역과 장흥부 장녕성을 점령한 후 강진현과 전라도 육군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병영성까지 함락합니다. 이처럼 장흥 지역에서 동학농민군의 연이은 승리는 전라도 동학농민군을 다시 장흥으로 모여들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12월 12일부터 나주에 본영을 설치한 일본군이 장흥부로 향하는 사로(四路)로 군대를 보내고 여기에 더해 일본군 부산수비대의 1개 중대를 보내 동학농민군이 장흥에

서 보성으로 넘어가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나아가 일본군함 죽파함과 조강함을 장흥부 남해안으로 보내 동학농민군이 인근 섬이나 제주도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봉쇄했습니다. 그런데도 소년 뱃사공 윤성도는 자기 집의 범선을 이용하여 덕도(德島)로 도피한 혁명군 5~6백 명을 야음을 틈타 지금의 완도(莞島)의 각 섬으로 분산 도피시켜 훗날 모두 무사히 생환합니다. 여기서 살아 돌아온 동학농민군은 일제 강점기에 모두 천도교 중심의 항일독립운동에 참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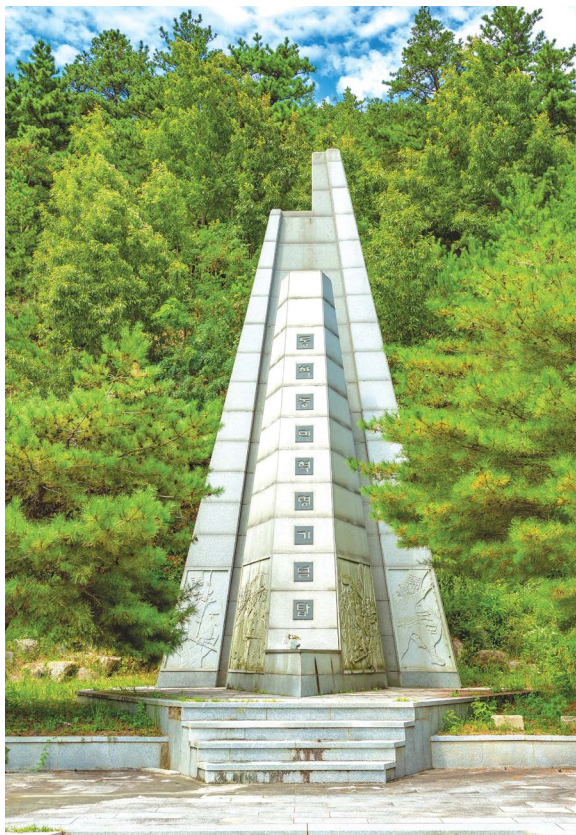


**문병학**

네, 이사장님의 얘기가 하도 생생하여 갑오년 당시 동학농민혁명 상황을 보는 듯합니다. 이사장님 이번에는 그동안 장흥지역에서 전개된 동학농민혁명 관련한 기념사업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석대들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산자락에 장흥 동학농민혁명기념탑을 건립하였지요? 기념탑을 건립하고자도 제막식 갖지 못하다가 여러 해가 지난 후에 제막식을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연유를 말씀해주실 수 있을런지요?

**위의환**

그렇습니다. 문 선생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장흥에서 동학농민혁명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1991년부터 노력을 기울여 이영권 국회의원의 도움으로 국가예산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장흥동학농민기념탑건립추진위원회’라는 관제어용단체를 만들어져 기념탑 건립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구색을 갖추기 위해 관군 후손 4명도 추진위원회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념탑을 1992년에 건립하였습니다. 기념탑이 건립됨에 따라 제막식을 가져야 하는데 관군 후손 쪽에서 자기들에게 떨어질 떡고물이 없으니까 제막식을 막무가내로 막았습니다. 수류탄을 터뜨려 버리겠다고 협박을 하고 난리를 치니 당시 관선군수가 무서워서 제막식을 하지 못하고 여러 해 방치하였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혁명 100주년 때부터 고재국 장흥군농민회 회장이 주축이 되어 방치된 기념탑 앞에서 매년 장흥군농민회가 추모식을 거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장흥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창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렇게 창립된 기념사업회가 주최가 되어 동학농민혁명 112주년이던 2006년에서야 제막식을 가졌습니다.



장흥 동학농민혁명기념탑

**문병학**

네, 참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장흥 동학농민혁명기념탑에서 내려다보면 장흥 석대들이 한눈에 훤히 내려다보이잖아요? 장흥과 동학농민혁명 그러면 빼놓을 수 없는 사건이 석대들 전투인데.... 이 전투에서 희생된 동학농민군의 무덤이 몇 차례 수난을 겪었었지요? 지금은 장흥군에서 관리하는 공동묘지 한쪽에 이장되어 모셔져 있지요? 묘지를 이장하게 된 배경 등에 대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의환

석대들 전투의 의의는 앞에서 상당히 설명되었다고 볼수지만, 12월 14~15일 양일간의 전투를 석대들 전투라고 하는데, 그 이전 12월 12~13일에도 치열한 전투가 있었습니다. 주한일본공사관기록에 일본군이 작성한 동학농민혁명 전투상보 목록에는 27개 목록이 나오는데 그중 5곳이 장흥의 전투상보 목록입니다. 장흥의 경군 토벌대장 이두환의 <우선봉일기> 1895년 1월 5일조를 보면 석대들을 비롯한 인근 주변에 흩어져 있는 동학농민군의 시신을 수습하라는 전령이 내려집니다. 경군이 1월 8일 나주로 올라가기 전의 일입니다. 지금의 장흥 공설운동장이 당시 동학농민군을 매장한 장소입니다. 이후 충열리 공동묘지라는 이름이 생겼습니다. 운동장, 체육관, 기념탑 등을 건립하면서 혁명군 1699기를 발굴합니다. 발굴기록을 살펴보고 발굴 참여자를 면담해보니 한구덩이에서 여러 명의 시신이 포개진 채 발굴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무연고처리 되어 현 장흥읍 금산리 공원묘지4묘역(무연고자 묘역)으로 이장하였습니다. 석대들 전투 이외에도 앞에서 말한 전투상보에 유치 조양촌 전투, 부산면 유앵동 전투, 장흥부 주변 전투, 관산을 옥산전투, 대덕읍 월정 전투 등이 일본기록과 관군기록, 제가 발굴한 기록 등에 상세히 나옵니다. 이점에 대해서도 차분하게 파악하고 기념사업을 기획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 문병학

석대들 전적지가 국가 사적으로 지정되었지요? 사적 지정을 추진한 배경과 당시 장흥지역의 상황 등에 대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의환

사적 지정을 추진한 경위는 사적으로 충분한 가치가 있었기 때문이죠. 사적으로 지정을 추진하면서 장흥지역의 동학농민혁명을 상징하는 기념관 건립을 함께 추진하여 탄력을 받았지요. 이 과정에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슬기롭게 대체하면서 필요할 경우에는 아주 단호하게 대처하여 기념관 건립이 가능했습니다. 기념관 건립 이후 운영하는 것에는 불만이 많습니다. 하드

웨어는 잘 갖추어졌는데 이를 운영하는 소프트웨어가 너무나 부족합니다. 군수면담을 통해 어렵게 얻어낸 약속도 군수가 바뀌고 실무자가 바뀌면 도로아미타불이 됩니다. 답답합니다. 이번에 새로 군수가 선출되었습니까? 그래서 수일 내로 현 군수와 면담을 통해 기념관 운영의 정상화 또는 활성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논의하고자 합니다.





**문병학**

장흥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에서 학술회의를 비롯하여 다양한 정신선양사업을 추진해오고 계시는데, 이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올해는 제128주년 동학농민혁명기념일에 맞추어 장흥군에서도 기념식을 개최하였는데 그 추진배경에 대해 설명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의환**

장흥에서는 매년 학술대회, 심포지엄 등 다양한 형태로 기념사업을 진행해왔으나 코로나 여파로 최근 3년간 개점 휴업했습니다. ‘핑 대신 답’이라고 작년에 기념사업회가 후원하여 여성 동학장군 이소사 뮤직비디오를 제작하였는데, 제가 노랫말 그러니까 작사에 참여했습니다. 국악풍으로 작곡하였고, 기념재단 홈페이지는 물론이고 여러 기념사업단체 홈페이지 등에 올렸습니다. 올해 장흥군에서 열린 전라남도 주최 국가기념식에서도 생음악으로 연주되어 많은 갈채를 받았습니다. 장흥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에서는 전라남도도 하여금 국가기념일 행사를 주최하도록 여러 경로를 통해 건의했으나 여러 번 묵살을 당했습니다. 그러다가 장흥출신 도의원의 도정질의를 통해 도지사의 답변을 이끌어내 올해 장흥에서 5월 11일 10시에 국가기념식을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올해 행사는 코로나로 인해 도비 3천만원, 군비 3천만원으로 행사를 했지만 앞으로는 예산을 확대하여 진행하려고 합니다.

**문병학**

이사장님, 장흥지역에 동학농민혁명 유적지들이 많지요? 석대들 전적지를 비롯하여 유적지들이 많은데 녹두꽃 독자님께 장흥지역 동학농민혁명 유적지를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의환**

2020년 기념재단으로부터 5백만 원 지원을 받아 만든 장흥동학농민혁명 지도를 제작했습니다. 장흥지역에서 벌어진 2차 기포를 중심으로 33곳의 유적지를 사진과 함께 간략한 설명을 넣어서 제작했습니다. 처음 기획할 때 유적지가 50곳이 넘었는데 지도가 깔끔하지 않아 33곳으로 압축했습니다. 33곳 유적지 중에 장흥군 예산으로 전투상보에 나오는 5곳(석대들, 자울재, 유앵동, 조양촌, 옥산)에는 안내 표지판이 있는데 나머지는 없어요. 앞으로 장흥군과 협의하여 추가로 설치해나갈 계획입니다. 여기서 모두를 언급할 수 없지만 이미 사적으로 지정된 석대들 전투지와 또 중요한 유적지로 지방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장흥읍 금산리 동학농민군 5~600명이 은신하였다가 윤성도 사공의 도움으로 모두 살아 돌아온 회진면 용암산록이 있습니다. 이밖에도 동학농민군이 많이 처형된 벽사역과 장태장군 이방언 장군이 처형된 장흥부의 군사훈련장 내 장대, 그리고 유앵동 전투에서 희생된 동학농민군을 매장한 부산면의 빈재, 관산을 옥산 전투에서 희생된 동학농민군을 매장한 남송리 공동묘지 등의 유적지들이 있습니다.



**문병학** 이번에 전라남도에서 주최한 국가기념식을 기해 장흥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에서 『장흥동학농민혁명군 후손 증언록』을 발간하였는데 그 경위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의환** 동학농민혁명 100주년 때 역사문제연구소에서 『다시 피는 녹두꽃』(1994)과 『전봉준과 그의 동지들』(1997)을 출판하였습니다. 『다시 피는 녹두꽃』에 이방언 장군, 이사경 대접주, 김학삼 대접주, 동학농민군 변규상, 김재득 후손의 증언이 실려 있고 『전봉준과 그의 동지들』에 동학농민군 김재황, 김철현, 백좌인, 백재인, 변규창, 이겸호, 이백호, 김두만, 대접주 윤세현 후손의 증언록이 실려 있습니다. 여기서 김재득과 윤세현은 강진 사람이지만 모두 장흥동학농민혁명 세력권에 있던 사람으로 장흥 전투에서 활약하였기 때문에 포함시켰습니다. 장흥 12명, 강진 2명의 증언록을 이 이화 선생 생전에 제가 편집하여 소책자를 만들고 싶다고 하니 흔쾌히 승낙해 주셔서 작업해준 것을 이번에 꺼내 증언록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연로하신 분들이 편히 읽을 수 있도록 활자도 14 포 인트로 크게 하였습니다.

**문병학** 장흥동학농민혁명기념관에 갑오년 당시 동학농민군이 사용했던 것으로 알려진 조총의 총열과 대포 포환이 전시되어 있지요? 이 유물에 대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의환** 먼저 조총에 대한 사항은 『장흥동학농민혁명군 후손 증언록』 〈농민군에게 군량을 운반해주던 이겸호〉 편에 자세히 나옵니다. 이겸호 손자 인흠 씨를 고(故) 우운 선생님이 인터뷰를 하다가 조총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자 우운 선생님이 당시 이종찬 장흥동학농민혁명유족회 회장을 통해 우운 선생님이 관장으로 있던 전주역사박물관에 전시하기 위해 대여해 가는데 이때 보관증을 써주고 장흥에서 필요하면 언제든지 돌려주겠다는 문구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장흥동학농민혁명기념관이 건립된 후 전주역사박물관으로부터 이 유물을 넘겨받아 전시하고 있습니다. 동학농민혁명 이후 산에서 은신하다 집으로 내려올 때 조총을 가져왔는데 남들 눈이 무서워 곤마리(마루짱) 밑에 숨겨 두었다고 합니다. 세월이 흐른 후 헌집을 털어내고 새집을 지을 때 이 조총이 나왔는데, 개머리판은 나무라 썩어 없어지고 쇠붙이인 총열만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이를 인흠 씨가 선반에 소중하게 보관하여 128년이 지난 오늘까지 남아 있는 것입니다. 포환은 소년장수 최동린의 양자인 최재호 씨가 보관하고 있던 것입니다. 최동린이 어린나이에 나주에서 처형되었는데 최동린 집안이 종손 집안이어서 손자뻘 되는 최재호 씨를 양자로 삼아 대를 이었습니다. 당시 최동린이 살았던 대덕읍 연지리는 장흥전투 야전사령관 이인환이 본래는 남평 출신이지만 회령진성의 군관으로 근무하다가 회령진성과 가까운 연지마을에서 정착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바로 이인환이 대포와 무기를 잘 다루었다는 구전이 있습니다. 연지마을에서 가까운 곳에는 당시 수철점(현 관산을 수동리)라는 관에서 운영하는 주물공장이 있었습니다. 1747년 정묘지라는 기록을 살펴보니 이 수철점에서 철광석으로 주물을 만들어 술, 화약 만드는 큰 가마솥, 무기 등을 만들어 장흥부, 병영성, 회령진, 우수영 등에 납품하였던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추정하건대 이인환의 주도로 수철점에서 포환을 만들어 연지마을에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배항섭 교수가 문화재청으로부터 동학농

민혁명과 관련한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것을 조사하는 용역을 하고 있는데 기념관에서 조사를 하여  
갔습니다.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조종과 포환을 지방문화재로 등록 신청하려고 합니다.



**문병학** 앞으로 추진해나갈 기념사업 계획에 대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의환** 제가 장흥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이사장을 맡은 것이 3년 4개월입니다. 장흥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나 장흥동학농민혁명기념관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져놓고 명예롭게 물러나려고 합니다. 어쨌거나 부족한 제가 지난 4월 24일부터 문화체육관광부 특수법인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로 임명되어 3년의 임기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라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에 적극적으로 힘을 쏟으려고 마음을 다지고 있습니다.

**문병학** 이사장님, 바쁘신 중에도 긴 시간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의환** 정읍에서 장흥은 먼 길인데 무더운 여름을 뚫고 찾아와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녹두꽃>이 유족이나 기념사업 하는 사람만 읽는 소식지가 아니라 온 국민, 특히 젊은 세대들이 많이 읽어서 우리나라 역사를 바로 아는데 밑거름이 되는 소식지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 2022년 예천동학농민혁명 학술대회



지난 7월 20일 경북 예천박물관 세미나실에서 '2022년 예천동학농민혁명 학술대회'가 (사)예천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이사장 전장홍)가 주최하고, 예천군과 동학농민혁명재단 후원으로 열렸다. 1부 주제발표, 2부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된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신영우 충북대학교 명예교수의 기조발제 「예천의 동학농민혁명 자료와 연구 전망」을 시작으로 제1주제 「동학농민군 박학래의 전기 학초전 고찰」(한경희 안동대학교 교수), 제2주제 「동학 유적 현황을 통해 본 예천의 동학농민혁명」(신진희 경북독립운동기념관 연구원), 제3주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의 역사」(경북 예천지역 기념사업의 현황과 과제) (문병학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기획운영부장) 순으로 이어졌다. 종합토론에는 이병규(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연구조사부장), 김영규(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 학초전의 저자인 동학농민혁명 지도자 박학래(1864~1942)의 후손 박종두 씨 등이 참여하였다.

# 녹두꽃, 다시 피다

## ■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교육·체험 프로그램

동학농민혁명박물관은 유아·어린이·가족(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기념공원 생태탐방 '녹두모험단', 미션을 해결하는 역사탐방 '1894년, 녹두꽃의 기억', 박물관 온라인교육 '1894년, 동학농민군을 만나다', 박물관 스스로학습 '1894! 가보세 갑오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대중적 인식과 공감대 확대를 위해 힘쓰고 있다.

1894 녹두꽃의 기억  
완주군, 삼우초등학교(2022.6.17.)



1894 녹두꽃의 기억  
순창군, 시산초등학교(2022.08.02.)



1894년 동학농민군을 만나다  
경기, 서연초등학교(2022.06.22.)



1894년 동학농민군을 만나다  
경기, 안일초등학교(2022.06.27.)





1894년 동학농민군을 만나다  
서울, 마장초등학교(2022.6.28.)



녹두모험단  
정읍시, 새싹 유치원(2022.06.16.)



### ■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교육·체험 프로그램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은 어린이·청소년 대상으로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운영을 통해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어린이 전시실과 녹두학당을 활용하여 동학농민군 캐릭터 만들기, 입체퍼즐 만들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내 기념시설물 활용 및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답사를 통해 청소년들이 동학농민혁명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 돕고 있다.

군산시, 지곡초등학교(2022.06.21.)



완주군, 한국과학게임고등학교(2022.06.22.)



전주시, 효천초등학교(2022.06.27.)



고창군, 북중학교(2022.06.28.)





전주시, 생명과학고등학교(2022.07.04.)



군산시, 자양중학교(2022.07.06.)



서울시, 신명중학교(2022.07.08.)



익산시, 이리남성여자중학교(2022.07.09.)



정읍시, 칠보중학교(2022.07.11.)



광주광역시, 정암초등학교(2022.07.13.)





익산시, 여산중학교(2022.07.14.)



진안군, 진안여자중학교(2022.07.15.)



부안군, 상서중학교(2022.07.19.)



임실군, 임실고등학교(2022.07.22.)



군산시, 회현중학교(2022.07.27.)





## ■ 생생문화재 프로그램

생생문화재 프로그램 '다시 피는 녹두꽃'은 일반인(성인·가족)과 다문화 가정, 65세 이상 노인 및 유아, 전국 중학생 등을 대상으로 '녹두장군과 함께하는 1박 2일', '파랑새를 찾아서',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녹두장군 이야기', '꿈을 품은 박물관' 등으로 진행하였다. 생생문화재 프로그램은 동학농민혁명 기념관 전시실 관람, 답사체험 및 답사신문 만들기, 공예체험, 동학농민혁명 퀴즈 및 퍼즐 풀기, 학예사가 되어보기 등으로 구성·운영 된다.

생생문화재  
2022년 문화재청 생생문화재 사업

다시 피는  
녹두꽃

2022년 6월 ~ 11월

1박2일 답사·체험 녹두장군과 함께하는 1박 2일  
다문화 가정 파랑새를 찾아서  
65세 이상 지역민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녹두장군 이야기  
자유학기제 꿈을 품은 박물관

### 녹두장군과 함께하는 1박 2일 (2022.06.18.~06.19.)



### 녹두장군과 함께하는 1박 2일 (2021.06.25.~06.26.)



###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녹두장군 이야기 (2022.07.01.)



###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녹두장군 이야기 (2022.07.08.)



###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녹두장군 이야기 (2022.07.12.)





## 언론에 비친 동학농민혁명

월 일	언론사명	기사제목
6월 15일	전북일보	전라감영 선화당 옆 동학농민혁명 관련 '특별한 안내판' 세웠다
6월 21일	전북일보	김대곤 전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 별세
6월 26일	전북일보	정읍에서 '제128주년 동학농민혁명 기념 전국 축구대회' 성료
6월 27일	전북도민일보	황토현 전적 내 동학농민혁명 동상 '불멸, 바람길'로 재탄생
7월 4일	오마이뉴스	2차 동학농민혁명 지도자, 독립유공자로 서훈해야
7월 5일	경남일보	"산청 동학농민군 학살지 발굴해 달라"
7월 15일	NEWSis	부안 미술협회, 동학농민혁명 백산대회 기념 기획전시회
7월 18일	새전북신문	동학농민혁명의 중심적 진원지 전북
7월 20일	매일신문	예천동학농민기념사업회, 예천 동학농민혁명 학술대회 개최
7월 21일	전북도민일보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지역문화재 활용사업 '다시 피는 녹두꽃' 프로그램 다채
7월 25일	연합뉴스	동학혁명정신 계승으로 역사도시 거듭나는 정읍
7월 27일	새전북신문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김응문 일가 유골 특별위원회 출범
7월 31일	전북일보	논산 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 전북 찾아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답사
8월 1일	서울신문	동학농민혁명 웹툰·웹소설 스토리 공모
8월 1일	강원일보	홍천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전국 휘호대회 개최
8월 2일	NEWS1	고창군, 손화중 도소 등 동학 유적지 '향토문화유산 지정' 추진
8월 9일	서울신문	동학농민혁명 웹툰·웹소설 공모전 개최...총상금 1억 2000만원
8월 10일	전북도민일보	개벽은 끝나지 않았다... '새로 쓰는 동학기행3'
8월 10일	광주드림	장흥 여자동학 이소사(召史·조이)
8월 21일	한겨레	지금 여기, 130여년 전 동학농민군이 달려온다
8월 25일	부안독립신문	부안군문화재단, 지역문화인력 지원사업 '동학을 내 마음속에 편화' 후속 전시 진행
8월 30일	당진신문	동학농민운동의 역사를 되새기다
8월 31일	오마이뉴스	동학혁명기의 '아리랑 세상'
8월 31일	새전북신문	고창군, 전봉준장군 동상 당선작
8월 31일	연합뉴스	정읍시, 전봉준 장군 일대기 담은 UCC 공모
8월 31일	NEWS1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일본 자료 번역한 '신국역총서' 발간
8월 31일	한겨레	"잔당들 잡아 총검으로..." 일본군이 본 동학혁명 첫 번역
9월 4일	광주일보	'동학농민혁명 신국역총서' 14번째 책 발간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등록 신청안내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에서는 봉건제도를 개혁하고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해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사람과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고자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등록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유족 등록 신청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유족분들이 빠짐없이 등록할 수 있도록 이웃 등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 등록신청 대상자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자녀·손자녀·증손자녀·고손자녀(외손 포함)

## ● 등록신청 서류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유족등록 신청서
- 첨부서류
  -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참여자와 신청인의 유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족보)
  - 신청인의 선조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였음을 알 수 있는 자료

## ● 제출방법

- 심의위원회 사무처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
- 사무처 주소 : 전북 정읍시 덕천면 동학로 742,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
- ※ 온라인 접수·FAX 접수는 받지 않음

## ● 문의처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 사무처(☎ 063-530-9434~5)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홈페이지([www.1894.or.kr](http://www.1894.or.kr)) 및 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cdpr.go.kr](http://www.cdpr.go.kr)) 참고



# 동학농민혁명박물관 상설전시관 개관

Opening of the permanent  
exhibition hall of Donghak Peasant  
Revolution Museum

1894년 그날의 '혁명'을 다시 짓다  
Again Build the Revolution of the Day in 1894

